

한·일 의뢰표현 연구

- 의미공식을 중심으로 -

김정현*
bekka-kim@hanmail.net

<目次>

- | | |
|------------|-----------------|
| 1. 들어가며 | 4. 결과 및 분석 |
| 2. 선행연구검토 | 4.1 의미공식 |
| 3. 연구방법 | 4.2 의뢰표현의 중심 구조 |
| 3.1 분석자료 | 5. 나오며 |
| 3.2 의미공식분류 | |

主題語: 依頼表現(Request Expressions), 意味公式(Semantic Formulas), 頼み(Request), 戦略(Stratgy), 意味内容(Semantic Content)

1. 들어가며

의뢰장면에 있어서 의뢰화자는 청자와의 관계¹⁾를 고려하며 전략적으로 의뢰를 한다. 그 이유는 화자 본인의 의뢰가 무엇이든 청자가 받아들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기 때문이다. 즉, 관계에 따라 의뢰의 방법이 달라지는데 熊谷(2008)는 “같은 장면에서의 언어행동이라도 그 방법은 하나가 아니다. 말을 거는 방법, 즉, 어떤 내용의 말을, 어느 정도, 어떤 순서로 하는지에 따라 정중함이나 영향 등의 인상은 달라진다”²⁾라고 언급하고 있다. 다시 말해서, 상대와의 관계와 의뢰 내용에 따라 의뢰가 성공할지 어떨지 그 결과는 달라진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한국과 일본의 의뢰장면에 나타나는 의뢰표현을 의미공식을 이용하여 의뢰표현의 유형을 분석하고 다음으로 친소관계와 상하관계에 따른 사용양상을 비교한다. 마지막으로 한국과 일본드라마에 보이는 의뢰표현의 구조, 다시 말해서 의미공식의 나열을

* 한국외국어대학교 일본어대학 일본언어문화학부 강사

1) 친소관계 또는 うち・そと・よそ관계, 상하관계, 남녀관계에 따른 구별

2) 熊谷智子(2008), p.27 참조

비교한다. 이러한 비교 분석으로 한일 의뢰표현구조의 차이를 더욱 명확히 하는 것을 목적으로 본 고찰을 진행한다.

2. 선행연구검토

의뢰표현의 선행연구 중 의미공식³⁾을 이용한 연구는 상당히 많다. 먼저 이 의미공식이라는 것을 누구보다 더 먼저 언급하고 사용한 연구자는 生駒・志村(1993)로 미국인일본어 학습자를 대상으로 한 거절표현연구에 사용하였다. 이후 많은 언어행동 연구자들이 生駒・志村(1993)의 의미공식 분류를 본인의 연구에 맞추어 의미공식을 의미내용과 의미기능에 따라 재구성하여 새로운 의미공식을 만들어 내었다.

하나의 발화된 문장을 의미공식에 의미공식을 더한 형태로 나열하고 핵심 의미공식구조로 그 결과를 이끌어 내는 연구(ラオハブラナキット・カノックワン(1997), 岡本(2001), 柳慧政(2005), 김종완(2011), 盧姝鉉(2012) 등)가 있다.

먼저 의미공식을 언급한 生駒・志村(1993)는 담화 완성 테스트를 이용하여 거절표현에서의 유해성분에 대해 분석하였다. 대상은 미국인일본어 학습자이며 4개의 다른 장면과 상대와의 관계를 3개로 설정하여 12개의 상황을 만들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ラオハブラナキット・カノックワン(1997)은 전화통화를 이용하여 청자에게 아래와 같은 거절표현 중심 구조를 제시하여 이유, 불가, 부정적 마커 3개의 요소를 중심으로 조사를 하였다.

<거절표현 중심 구조>

あは一、<c1>ちょっと<a2>用事がある(理由の内容)ので(略)うーん、<c2>やっぱり<b2>難しい(附加の内容)かな<b1>

<요소별 설명>

a1: 「理由」の命題に後続する形式(んですけど)

b1: 「不可」の命題に後続する形式(一かな)

3) 生駒・志村(1993)의 의미공식 분류를 아래에 간단히 소개하였다.
「사죄」「이유」「직접」 등, 사람이 거절할 때 사용하는 말을 그 의미내용에 따라 분류한 것이다.
예: 「사죄」-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사죄」- 선약이 있어서...
「사죄」- 안돼, 싫어, 무리 등

- a2: 「理由」の命題に前続する形式(ちょっと)
- b2: 「不可」の命題に前続 する形式 (やっぱり)
- c1: 「理由」の内容を特に修飾していないが、」に先行し、断る者の否定的な態度を表す形式(あ、うーん、あはー)
- c2: 「不可」の内容を特に修飾していないが、「不可」に先行し、断る者の否定的な態度を表す形式(あ、うーん)

한편, 이러한 의미공식을 이용한 연구를 참고로 의뢰표현연구에도 의미공식이 적용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의뢰표현에는 거절표현과 달리 授受를 나타내는 기본적인 동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어 한국어에는 ‘주다’, ‘주시다’가 있고 일본어에는 「あげる」「くれる」「もらう」「いただく」 등, 여기서 파생되는 여러 표현 등이 있다. 이러한 수수동사를 이용하여 의뢰표현을 대상으로 한 연구(鄭慧卿(1995), 송혜선(2006))도 활발하다. 이 외에 授受를 언급하지 않고 의뢰를 말하는 표현들을 연구한 것도 있는데 柳慧政(2005)은 연구목적에서 授受를 언급하지 않고도 상황에 따라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말을 골라서 사용한다고 말하고 있다. 이러한 사용양상을 일본 동경에 거주하는 일본인학생 33명, 서울에 거주하는 학생 69명을 대상으로 하여 상하관계와 의뢰시의 부담을 경중으로 나누어 톨·플레이를 이용하여 연구하였다.

그 결과 의미공식을 크게 직접형, 간접형, 완곡형으로 나누고 각각의 형에 하위로 분류하여 의미공식을 세분화하고 상황에 따른 의미공식별 사용률을 조사하였다.

김종완(2011)은 일본인모어화자, 일본에 거주하는 중국인유학생, 한국인유학생을 대상으로 의뢰장면에서 보이는 하나의 의뢰담화를 도입부, 설명부, 의뢰부 등으로 나누고 의뢰부에 있어서 岡本(2011)의 담화분류 방법을 기준으로 직접적 형식, 습관적 간접적 형식, 비습관적 간접적 형식으로 분류하여 의뢰표현의 사용실태를 파악하고 있다.

이상으로 위에서 검토한 선행연구 등은 장면설정과 대상에 있어서 연구자의 의도대로 정해진 장면 설정과 대상이라 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연구에 따라서는 일본어화자와 일본어 학습자간의 비교연구도 있으나, 일본어 학습자의 의뢰표현은 일본식 의뢰표현의 영향을 받고 있지 않다고는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선행연구검토를 참고로 한국과 일본의 드라마를 이용해 한국인화자와 일본인화자의 의뢰표현을 비교하고자 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한·일 드라마의 의뢰장면에 출현하는 의뢰표현을 연구대상으로 정하였다. 드라마를 자료로 사용한 이유는 먼저, 언제 어디서 일어날지 모르는 자연담화는 녹취가 어렵다는 사실이 무엇보다 크며, 蒲谷宏(2013), 金楨憲(2014a), 오현정(2010) 등이 언급하고 있는 바와 같이 드라마는 실제 상황에 가장 가깝게 쓰고 있는 일상 대화를 사용하고 있다는 점 때문이다.

가장 이상적인 분석 자료로서 바람직한 자료는 말 할 것도 없이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자연담화일 것이다. 이러한 자료를 수집하는 것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많은 담화연구에서 DCT 또는 롤·플레이가 사용되어 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오현정(2010)은 ‘드라마 대화문은 실제 상황에 쓰고 있는 담화를 최대한 재현하고자 노력한 점과 회화 전개나 언어표현이 일반인들의 언어표현과 큰 차이가 없다는 점, 또 실제 상황에서 일어나기 쉬운 여러 장면에서 다양한 담화 패턴을 손쉽게 얻을 수 있다는 점 때문이다’라고 주장하고 있다. 이런 주장들을 들어 본 연구에서도 드라마에 보이는 의뢰장면에서의 의뢰표현을 분석대상으로 하였다.

3.1 분석자료

본 연구에서 이용한 TV드라마자료의 상세를 아래의 <표1>에 제시하였다.

<표1> 분석대상 한·일 TV드라마자료

한국드라마 명	년도	약어	일본드라마 명	년도	약어		
① 태양의 여자	총8화	2008	태	① 流れ星	총10화	2007	星
② 광고천재 이태백	총7화	2009	광	② Around40	총11화	2008	A
③ 최고다 이순신	총13화	2013	최	③ 陽はまた昇る	총9화	2011	陽
④ 내 딸 서영이	총5화	2013	딸	④ 曲げられない女	총10화	2011	女
⑤ 열혈 장사꾼	총12화	2013	열	⑤ 冬のさくら	총9화	2011	冬

한국의 드라마 경우 총 45화 분량에서 54개의 의뢰장면, 일본드라마의 경우 총 49화 분량에서 78개의 의뢰장면이 나타났다.

3.2 의미공식 분류

의미공식 분류에 있어서 生駒・志村(1993)와 柳慧政(2005)의 연구를 참고하여 크게 직접의뢰와 간접의뢰로 나누었다. 生駒・志村(1993)를 참고하여 의미내용 분류기준으로 하였다. 그리고 柳慧政(2005)에서는 직접의뢰 및 간접의뢰 그리고 하위분류로 나누는데 있어서 참고하였다. 柳慧政(2005)는 의뢰를 직접형, 간접형, 완곡형으로 나누고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완곡형을 간접의뢰에 포함하여 직접의뢰와 간접의뢰로 나누었다.

직접의뢰의 하위분류로 ‘직접의뢰형’, ‘청유형’의 2개로 나누고 ‘간접의뢰’의 경우 ‘가능형’, ‘허가형’, ‘희망형’, ‘상황설명형’, ‘의뢰타진형’의 5개로 나누었다. 본 연구에서의 의뢰표현은 7개의 하위 카테고리로 나누어 졌으며 아래의 <표2>에 정리하였다.

<표2> 의뢰표현 의미공식

의미공식		의미내용에 따른 분류기준	한국어 예	일본어 예
1	직접의뢰	주다, 주시다, くれる, もらう, いただく 등의 수수동사를 이용하거나 ‘부탁’, ‘頼む’ 등의 수행동사를 말해 직접적으로 의뢰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내 일이나 도와줘라. ·커피 하나만 만들어 줘요 ·제발 한 번만 봐 주시면 안 될까요? ·다시 한 번 생각해 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助けて ·頼まれてくれよ ·今すぐくれないか? ·謝罪だけはしないでください ·頼む(よ) ·お願い(します)
	청유형	한국어의 ~하시다, 일본어의 ~ましょう의 형태로 의뢰함	·그 유도리 좀 발휘합시다.	없음
2	간접의뢰	가능의 형태를 취하고 청자가 화자의 이익을 위해 어떤 행위를 해 줄 수 있는지 물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手術してもらえませんか? ·訂正記事を出してもらえるんですか?
	허가형	화자 자신의 이익을 위해 직접 어떤 행위를 허가받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行かせてください ·私にやらせて ·血液を取らせてもらえませんか?

	희망형	희망을 나타내는 ~たい를 취하고 화자 또는 청자가 어떤 행위를 하도록 바램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ついていてやりたいんです ・治療させていただきたいんですけど
	상황 설명형	의뢰를 위한 상황 설명을 함	<ul style="list-style-type: none"> ・아, 진짜로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내 오죽하면 자네를 찾아 왔겠나 (부탁하네) 	<ul style="list-style-type: none"> ・入院を認めてもらうように話をしに行くから(一緒に来てくれる?)
	의뢰 타진형	의뢰에 앞서 청자가 의뢰를 받아들일 수 있을지를 앞서 물음	없음	<ul style="list-style-type: none"> ・ちょっと時間ある?

다음의 4.결과 및 분석에서는 의뢰표현을 의미공식별 출현수와 의뢰표현 중심구조에 대하여 비교 분석한다.

4. 결과 및 분석

4.1 의미공식

한국과 일본 드라마 총 94화 분량에서 의뢰장면은 132개 출현했다. 출현한 의뢰표현을 의미공식별로 분류한 결과를 아래의 <표3>에 정리하였다.

<표3> 한일거절표현 의미공식별 분류 *출현 수(%)

의미공식		한국드라마	일본드라마
1	직접의뢰	직접의뢰형	57(95)
		청유형	1(1.6)
2	간접의뢰	가능형	0(0)
		허가형	0(0)
		희망형	0(0)
		상황설명형	2(3.4)
		의뢰타진형	0(0)
합계		60(100)	95(100)

한국 드라마의 경우 의뢰장면이 54개로 의뢰장면 속에서 의뢰내용에 따른 의미공식이 총 60개 출현하였다. 의뢰의 발화 수는 57개로 단독으로 사용되어진 의뢰의 발화는 용례(1)과 같이 48(84.2%)개로 상당히 높은 비율을 보였다. 나머지 9개의 발화에서는 용례(2)와 같이 적게는 2개 이상의 의미공식으로 이루어진 발화가 나타났다. 그 외에 용례(3)과 같이 부가적인 표현이 발화의 앞뒤에 붙어 의뢰를 수행하고 있다.

(1) 기자: 재판부 이서영 판사가 너였어? 잘됐다. 몇 가지 이야기 좀 해 줘
(딸12화)

(2) 순신엄마친구: 아-그래- 주방아줌마가 다음 주까지만 하고 그만둔데
(상황설명형)
바쁜 시간에 서 너 시간만 와서 좀 도와주라-
(직접의뢰형)
돈은 내가 넉넉하게 쳐 주께. (최11화)
(부가적요소-보상약속)

(3) 윤사월: 아이- 만원만 빼줘요- 사장님 잘생기면 다야? 하하 (태1화)
(직접의뢰형) (부가적요소-칭찬)

일본 드라마의 경우 의뢰장면이 78개로, 의뢰장면 속에서 의뢰내용에 따른 의미공식이 총 95개 출현하였다. 의뢰의 발화 수는 87개로 단독으로 사용되어진 의뢰의 발화는 용례(4)와 같이 57(60%)개가 나타났고 절반을 넘는 비율을 보였다. 나머지 30개의 발화에서는 용례(5)와 같이 적게는 2개의 의미 공식으로부터 많게는 4개 이상의 의미공식으로 이루어진 발화가 나타났다. 그 외에 용례(6)과 같이 부수적인 표현이 발화의 앞뒤에 붙어 의뢰를 수행하고 있다.

(4) アンナ: 「萌奈美さんも一緒に行ってくれない?」
(직접의뢰형) (冬4話)

(5) 同僚医者: 「入院中の患者さんで見てもらいたい患者さんがいるんだけど、今いいな?」
(정보제공+희망형) (의뢰타진형)
(A3화)

(6) 善隆: 「子供たちのためにも、このまま、ずっといてくれないかな。」 (女10話)
(부가적요소-호소) (직접의뢰형)

사용빈도가 높은 상위 2개를 보면 한국 드라마에서는 직접의뢰형 >상황설명형의 순으로 나타났고 일본의 경우는 직접의뢰형 >가능형의 순으로 나타났다. 한국과 일본 모두 의뢰할 때 가장 많이 사용하는 표현으로 직접의뢰형을 선택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상위 1개의 의뢰표현을 제외하고 보면 한국 드라마에서는 특히 사용되고 있는 표현은 없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일본 드라마에서는 가능형(22.1%), 허가형(3.2%), 희망형(4.2%) 등 다양한 의미공식이 나타났다. 이 결과에 한해서 생각할 수 있는 것은 한국에 비해 일본어모어 화자 쪽이 의뢰를 수행하는데에 있어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며 의뢰를 받는 청자가 받게 될 부담을 줄이고자 노력을 더 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에 반해, 직접의뢰형을 주로 사용하는 한국어모어화자는 의뢰에 대한 부담도가 일본어모어화자에 비해 낮음을 알 수 있다.

이하의 <표4>와 <표5>에 한국드라마와 일본드라마에 있어서 가장 많이 사용되어진 직접의뢰형을 ‘아/어/여 줘. 아/어/여 주라’⁴⁾ 등의 수수동사와 「頼む」 「お願い」와 같은 수행동사⁵⁾로 분류하여 친소관계, 상하관계에 따른 사용양상을 나타내었다.

<표4> 한국드라마 속의 관계에 따른 직접의뢰형 사용양상 *(개수)

관계	친			소		
	상	동	하	상	동	하
직접 의뢰형		수수(13)		수수(6)	수수(14)	수수(10)
			수행(5)	수행(5)		수행(4)

<표4>의 친소 및 상동하에 해당하는 것은 청자이다. 따라서 표기된 의미공식은 청자에게 발화된 의뢰표현을 의미공식으로 바꾼 것이다. 직접의뢰형 중에서 수행동사를 활용한 의뢰표현보다 수수동사를 활용한 의뢰표현이 많은 것을 알 수 있다. 그 이유는 ‘부탁해(요)’, ‘부탁드립니다’ 등의 수행동사는 어휘자체로 수행문이 되기 때문에 의뢰부담은 커진다. 다시 말해서 의뢰의 수행동사가 전해지는 순간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것이다. 이와 관련하여 김종아(2014)는 수행동사에 대해 “발화함과 동시에 어떤 행동을 부탁하는 의뢰의 의미를 나타내고 있다”고 언급하고 있다. 따라서 수행동사를 사용한 의뢰표현이 소수 출현한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친의 관계 보다 소의 관계에서 보다 많은 의미 공식이 사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의 관계인 소상과 소하에서 수수동사와 수행동사의 사용양상이 동시에 보인다. 반면 친-상에서의 수수동사 및 수행동사의 사용은 보이지 않으며

4) 柳慧政(2005), p.273의 直接依頼形 참조

5) 김종아(2014), p.260의 수행동사에 의한 의뢰표현 참조

친-동에서는 수수동사의 사용만 확인되고 친-하에서는 수행동사의 사용만이 보인다.

<표5> 일본드라마 속의 관계에 따른 직접의뢰형 사용양상 *(개수)

관계	친			소		
	상	동	하	상	동	하
직접 의뢰형	수수(4)	수수(19)	수수(3)	수수(5)		
	수행(2)	수행(11)		수행(13)		수행(6)

<표5>는 일본드라마에 출현한 의뢰표현 중 직접의뢰형의 사용양상을 정리한 내용이다. <표4>와 같이 <표5>의 친소 및 상동하에 해당하는 것은 청자이다. 따라서 표기된 의미공식은 청자에게 발화된 의뢰표현을 의미공식으로 바꾼 것이다.

일본드라마에서는 한국드라마와 달리 소의 관계보다 친의 관계에서 직접의뢰형이 많이 출현하였다. 드라마 선정에서의 영향도 무시할 수 없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자료에 한해 생각할 수 있는 결과로 직접의뢰형 사용에 있어 한국의 경우 소의 관계에서 주로 사용하며 일본의 경우 친의 관계에서 주로 사용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친의 관계 보다 소의 관계에서 보다 많은 하위의 의미 공식이 사용 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또한, 소의 관계인 소-상과 소-하에서 수수동사와 수행 동사의 사용양상이 동시에 보인다. 반면 친-상에서의 수수동사 및 수행동사의 사용은 보이지 않으며 친-동에서는 수수동사의 사용만 확인되고 친-하에서는 수행동사의 사용양상을 보이고 있다.

4.2 의뢰표현의 중심 구조

여기에서는 직접 및 간접의뢰에 붙어 의뢰를 돕고 있는 부가적인 요소가 의미공식과 어떻게 연결되어 나타나며 한국과 일본드라마에서 어떤 형태로 쓰여 지고 있는가까지도 고찰하여 의뢰표현의 중심 구조를 파악한다. 아래의 <표6>은 의뢰표현에 붙는 부가적인 요소를 의미공식에 더하여 유형별로 나누어 결과이다. 단, 같은 의미공식은 중복하여 기입하지 않았다.

<표6> 한·일드라마 의뢰표현구조

관계구분		한국	일본
친의 관계	상	·직접의뢰형(수수)+부정의문 ·직접의뢰형(수수)+각오	·허가형 ·희망형 ·직접의뢰형(수행) ·가능형+직접의뢰형(수행)+이유설명
	동	·직접의뢰형(수수) ·직접의뢰형(수수)+보상약속	·직접의뢰형(수수) ·직접의뢰형(수행) ·호소+직접의뢰형(수수) ·직접의뢰형(수수)+직접의뢰형(수행)
	하	·수궁+직접의뢰형(수행)+희망	·상황설명+직접의뢰형(수수)
소의 관계	상	·직접의뢰형(수수)	·가능형 ·허가형 ·사죄+가능형 ·직접의뢰형(수수) ·직접의뢰형(수행) ·사죄+정보제공+가능형 ·직접의뢰형(수행)+가능형+상황설명형
	동	·청유형 ·직접의뢰형(수수) ·직접의뢰형(수행) ·직접의뢰형(수수)+칭찬 ·직접의뢰형(수수)+상황설명형	·정보제공+희망형+의뢰타진형
	하	·직접의뢰형(수수) ·직접의뢰형(수행) ·의뢰기간제시+직접의뢰형(수수) ·약속+상황설명+호소+약속+직접의뢰형(수행)+호소	·허가형 ·희망형 ·직접의뢰형(수행) ·정보제공+의뢰타진형

친소 및 상동하의 6개의 관계 속에서 주로 사용된 의미공식으로는 용례(7)~(12)와 같이 직접의뢰형(수수)이 14개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용례(13)~(18)과 같이 직접의뢰형(수행)이 관계별 10개 부분으로 뒤를 이었다. 한국 및 일본드라마 전체적으로 직접의뢰형이 다른 의미 공식보다 많이 사용되어진 것을 알 수 있다.

(7) 신준호: 어머니께서 독려도 해주시고 그리고 뒷바라지도 해주십사 이렇게
(직접의뢰형-수수) (직접의뢰형-수수)

찾아 왔습니다. 저도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10화)

(부가적요소-각오)

(8) 이태백: 카피 하나만 만들어 줘요. (광1화)

(직접의뢰형-수수)

(9) 소정: 나 뭉빵 좀 해줘라. (열1화)

(직접의뢰형-수수)

(10) 松岡: 「頼まれてくれよ、湯原」 (陽3화)

(직접의뢰형-수수)

(11) 祐: 「さあ、もう出てってくれ」 (冬9화)

(직접의뢰형-수수)

(12) 岡村: 「...岡村さん。神林さんに、入院を認めてもらうように話をしにいくから、

(상황설명형)

一緒に来てくれる?」 (A6화)

(직접의뢰형-수수)

(13) 하류: 저, 딱 5분만 저에게 주십시오. 부탁드립니다. (열19화)

(의뢰기간제시) (직접의뢰형-수행)

(14) 에디강: 오늘 이태백씨를 보자고 한건 두 가지 부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직접의뢰형-수행) (광9화)

(15) 하류여자친구 아버지:

그래. 내 몇 일 내로 갚음세. 아, 진짜로 급한 일이 생겨서 그래.

(부가적요소-약속)

(상황설명형)

내 오죽하면 자네를 찾아 왔겠나. 우선 급한 불부터 끄구.

(부가적요소-호소)

그래, 딱 일주일. 일주일 내로 다시 돌려줍세. 부탁드립니다.

(부가적요소-약속)

(직접의뢰형-수행)

나 좀 살려주게.

(열12화)

(부가적요소-호소)

(16) 修一: 「とにかく…手術してもらえませんか? お願いします。」 (星6화)

(가능형) (직접의뢰형-수행)

(17) 隣人: 「お願いします。助けていただけませんか?」 (女8話)

(직접의뢰형-수행) (가능형)

うちの子、大学停学になってから、お酒を飲んで暴れて困っているんです。

(상황설명형)

(18) 貞夫: 「お願いします!」 (A8화)

(직접의뢰형-수행)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먼저, 한국드라마의 경우 직접의뢰형 외에는 청유형 및 희망형, 상황 설명형만이 보인다. 한국드라마에서는 주로 직접의뢰형에 <각오>, <보상약속>, <수궁>, <칭찬>, <의뢰기간제시>, <호소> 등의 부가적 요소를 붙여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음으로, 일본드라마의 경우 직접의뢰형 외에 허가형, 희망형, 가능형, 의뢰타진형, 상황설명형의 의미공식이 보인다. 일본드라마에서는 허가형, 희망형, 가능형, 의뢰타진형을 단독으로 사용하는 경우가 나타났다. 직접의뢰형에 <호소>, <사죄>, <정보제공>의 부가적 요소를 붙여 의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드라마의 경우 의미공식에 붙여 사용하는 부가적인 요소의 종류가 6가지인 것에 비해 일본드라마의 경우 3가지로 종류가 단순하다. 또한, 한국드라마의 경우 의뢰표현구조가 주로 직접의뢰형에 치우쳐 있는 것에 비해 일본드라마의 경우 의뢰표현구조가 몇 개의 의미공식이 더하여져 있는 경우가 많다. 다시 말해서 한국의 의뢰표현의 구조는 단순하고 일본에 비해 의뢰를 간단명료하게 수행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5. 나오며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 드라마의 의뢰장면에서 의뢰표현을 발췌하여 의미내용에 따라 의미공식을 분류하였다. 다음으로 의미공식을 이용하여 의뢰표현의 사용양상을 분석하고 의뢰표현의 중심 구조를 비교하였다.

그 결과 먼저, 의미공식은 크게 직접의뢰와 간접의뢰의 2개로 나누어졌고 직접의뢰는 직접

의뢰형과 청유형 2개로 하위분류되었고 간접의뢰는 가능형, 허가형, 희망형, 상황설명형, 의뢰 타진형의 5개로 나누어졌다.

다음으로 한국 드라마의 경우 의미공식이 총 60개 출현하였다. 주로 사용된 의미공식은 직접의뢰형이 단독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일본 드라마의 경우 의미공식이 총 95개 출현하였다. 의뢰의 발화 수는 87개로 단독으로 사용되어진 의뢰의 발화는 57개로 절반을 넘는 비율을 보였다. 나머지 발화에서는 의미공식에 의미공식이 더해지는 구조를 보였다.

다음으로 의뢰표현의 의미공식의 앞뒤에 붙어 의뢰를 수행하는데 도움을 주는 부가적인 요소들은 의미공식화하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예를 들어 거절표현의 부정적 마커와는 달리 부수적인 「あの」「ちょっと」등 만으로는 의뢰라는 것을 알 수 없기 때문이다. 의뢰 또는 제안, 권유 등을 받아 청자가 발화하는 직접적인 거절표현에 붙는 「あの」「ちょっと」 등은 거절을 암시하는 부정적인 마커로서 화자가 거절에 해당하는 단어를 듣지 않아도 거절을 의미한다는 것을 인지할 수 있으므로 라오하브라나킵·카노크ワン(1997)이 거절중심구조에 제시한 것과 같이 의미공식화 할 수 있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본 연구결과에 한정하여 알 수 있는 것은 한국과 일본 드라마에서 모두 직접적인 의뢰표현을 다수 사용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직접적인 의뢰표현에 붙는 부수적인 표현이 한국 드라마 경우 화자중심의 발화의 경우가 다수 보이며 일본 드라마의 경우 청자 중심의 발화의 경우가 더 보인다는 것이다. 이는 언어생활 환경에서 비롯한 것으로 우선 생각할 수 있는데 더 명확한 이유에 대해서는 금후의 과제로 남긴다.

【참고문헌】

김미정(2013)「행위요구표현의 담화 및 학습서 분석—한·일 명령, 의뢰표현을 중심으로—」『日本語教育研究』第27輯, pp.13-29
 김종아(2014)「일본어와 한국어 『의뢰』표현의 대조 연구—의미론과 화용론의 상호주의적 관점에서—」『日本研究』第62輯, pp.243-267
 김종완(2011)「일본어 의뢰행동의 담화구조 및 의뢰표현의 특징—일본인모어화자 한국인, 중국인 유학생의 경우—」『日本文化研究』第37輯, pp.75-94
 오현정(2010)「한국어 교재와 드라마에 나타난 거절표현 특징 연구—추론단계 중심으로—」국제한국어교육학회, 『한국어 교육』21-3, pp.129-158
 生駒知子·志村明彦(1993)「英語から日本語へのプラグマティック・トランスファー：「断り」という発話行為について」『日本語教育』79号, pp.41-49
 岡本進一朗(2001)『言葉の社会心理学』メカニヤ出版
 金楨憲(2014a)「断りにおける『理由表明』の韓日比較—『頼み、勧誘、提案』の場面に焦点をあてて—」『日本近

代學研究』第45輯、pp.113-128

熊谷智子・篠崎晃一(2006)「依頼場面での働きかけ方における世代差・地域差」『言語行動における配慮の諸相』くろしお出版、pp.19-54

熊谷智子(2008)「依頼と謝罪における働きかけのスタイル」『言語』、p.27

鄭泰暎(1998)「談話行動에서의 待遇表現-依頼行動의 分析을 中心으로-」『日本教育』第15輯、pp.3-35

鄭惠卿(1995)「親疎관계에 의한 依頼表現의 使用法-『~テ+授受動詞』構文의 分析을 中心으로-」『日語日文學研究』第27輯、pp.27-55

盧姪鉉(2012)「親友の間柄での依頼行動-日本人・韓国人・韓国人日本語学習者の領域意識の側面から-」『日語日文學研究』제83집、pp.167-183

ラオハブナキット・カノックワン(1997)「日本語学習者にみられる「断り」の表現-日本語母語話者と比べて-」『世界の日本語教育』7、pp.97-112

柳慧政(2005)「韓国語と日本語の依頼表現の対象研究-依頼表現の使い分けを中心に-」『日語日文學研究』第53輯、pp.269-288

논문투고일 : 2018년 12월 30일
심사개시일 : 2019년 01월 17일
1차 수정일 : 2019년 02월 03일
2차 수정일 : 2019년 02월 10일
게재확정일 : 2019년 02월 15일

〈要旨〉

한·일 의뢰표현 연구
- 의미공식을 중심으로 -

김정현

의뢰 시 상대방과의 관계를 고려하여 화자 자신의 요청이 받아들여지기를 바라며 다양한 전략을 사용하여 의뢰한다. 이러한 의뢰표현을 본 고찰에서는 먼저 한·일 드라마에 출현하는 의뢰표현을 이용하여 의미공식화하고 그 사용 형태를 검토했다. 다음으로 주로 사용되는 의뢰 표현의 중심 구조를 검토했다.

그 결과, 의미공식은 크게 직접의뢰 및 간접의뢰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직접의뢰는 직접 의뢰형과 청유형으로 나누어졌다. 또한 간접의뢰는 가능형, 허가형, 희망형, 상황설명형, 의뢰타진형의 5가지로 분류할 수 있었다.

다음으로 한국 드라마는 총 60개의 의미공식이 출현하였고, 일본 드라마에서는 총 78개의 의미공식이 출현했다. 그리고 한국 드라마의 경우 직접의뢰형의 수수동사의 활용이나 직접 의뢰형의 수행동사를 활용한 간단한 의뢰표현 중심구조가 보였다. 한편, 일본 드라마의 경우 직접의뢰형 이외에 가능형, 희망형 등의 의미 공식이 결합 된 경우도 있다.

마지막으로 의뢰 공식의 앞뒤에 붙어 의뢰효과를 더하는 부가 요소가 관찰되었는데 한국 드라마의 경우 <각오>, <보상약속>, <호소>, <납득>, <칭찬> 등이, 일본 드라마의 경우 <호소>, <사죄>, <정보제공>을 붙여 의뢰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A Comparative Study on Request Expressions in Korea and Japan

- Focused on Semantic Formulas -

Kim, Jeong-Heon

When making a request, the request is carried out using several strategies, hoping that the speaker's own request will be accepted considering the relationship with the other party. In this study, we used a request expression that appeared in Korean and Japanese dramas to form Semantic Formulas sense and saw how it was used. Next, We examined the central structure of Request expressions.

As a result, Semantic Formulas were divided into two direct referral and indirect referral. Also, Indirect referrals were classified into five types: allowable, permissive, hopeful, explanatory, and referral.

Next, 60 semantic formulas appeared in Korean dramas and 78 semantic ones in Japanese dramas. In the case of Korean dramas, the center structure of simple client expression was expressed by using direct request type acting verb and direct request performance verb. On the other hand, Japanese dramas have combined semantics such as possible and hopeful types.

Finally, additional elements that help the request were observed in front of and behind the request ceremony, including resolution, compensation contract, appeal, acceptance and praise, and Japanese drama on request.